

# 나주 '만성 적자' 주몽 세트장, 부분 철거된다

인기드라마 '주몽' 촬영지로 주목 받았지만 만성 적자인 나주영상테마파크가 부분 철거되고 남도의병의 충혼을 기리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건축 미학적으로 뛰어난 영산강변 절벽위에 우뚝 솟은 고구려궁만 남긴 채 이르면 6월부터 단계별로 철거될 예정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영상테마파크는 시가 지난 2008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13만1000여㎡의 부지에 80억원을 들여 100여채의 궁궐과 민가 등을 조성했다.

그간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이용돼 왔지만 드라마 방영시기 등에만 반짝 인기를 끄는 데 그쳐 매년 관람객 급감으로 관리 운영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예조 80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16년 간 투입된 관리·운영예산을 더하면 13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민선 5기부터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최근까지도 뾰족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 낭비로 이어져왔다는

## 나주영상테마파크 고구려궁 남기고 철거도, 440억원 투입 '남도의병 박물관 건립'



점이다.

간간히 드라마와 영화촬영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나주시에 무료협찬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체계의 늪에 빠진 테마파크가 부분 철거를 통해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으로 조성되게 됐다.

일각에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조성한 드라마세트장을 철거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관리·운영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분철거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이다.

부분 철거 예정인 영상테마파크는 전체 부지 5만792㎡에 건축물은 5616㎡(95동) 규모다.

1차 철거 대상은 해자성, 졸본부여궁, 저작거리, 중간성, 귀촌촌, 중간성, 연못궁 등이다.

나주시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협의 과정에서 존치키로 답을 받은 고구려궁 면적은 1만3066㎡로 전체 부

지의 약 26%를 차지한다.

나주시는 존치되는 고구려궁의 사후 경제성 높은 활용방안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영상테마파크 부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전남도가 주관한 박물관 조성 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8개 시·군 중 1순위로 선정됐을 만큼 최적의 입지로 인정받은 만큼 기존 테마파크를 넘어서는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와 나주시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해 추진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 3686㎡(110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시기는 2025년 말이다. 전시·체험·교육 공간 등으로 꾸러지고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전남도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박물관 도로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변 숲, 산책길과 영산강변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명품체험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조성준 기자

##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화순, 오는 17일 능주 들판·역사관 마당서 개최

모네가 한창인 남도 들녘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은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능주들소리보존회원과 주민, 관광객,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능주 들판과 능주 역사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지난해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받았다.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는 전남도 대표로 출전하는 등 무형유산적 가치가 크다.

이번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

으며 시연할 예정이다.

기계 농사가 주류를 이룬 농촌 들녘에서 옛 모내기 풍경을 재현하고 당시 불렀던 들소리까지 곁들여지는 뜻깊은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 식전 행사는 능주면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악대의 길놀이로 시작된다. 이어 능주역사관 앞마당에서 개회식이 열린 뒤 오전 11시30분 인근 논에서 본격적인 들소리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길놀이는 노인회관을 출발해 능주 삼거리식당, 능주농협, 역사관 앞까지 이어진다"며 "능주면민들이 참가해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뜻깊은 한마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 광양, 예산참여마켓 '모든' 박람회 연다

오는 17일, 정책으로 메아리치는 시민들의 목소리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예산참여마켓 '모든' 박람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양시청 앞 광양시민광장에서 열린다.

예산참여마켓 '모든'은 단체나 시민이 광양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홍보하며, 발급된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박람회에 참가할 팀을 모집해 29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들은 각자가 제안하는 정책을 박람회를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접 홍보 부스를 꾸민다.

이번 '모든' 행사는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7개 분야의 정책 제안 부스와 이

와 관련한 체험 활동 부스도 함께 마련됐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이를 어려워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번 '모든'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참여마켓 '모든'은 시민참여팀 대표자 개회사로 시작해 참여팀들의 정책 발언과 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제안된 각 팀의 정책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투표로 우수정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광양=조순희 기자

## '해남미소' 햇마늘 기획전 '최대 25% 할인' 판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햇마늘 소비촉진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수확한 햇마늘을 가정에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깎마늘과 통마늘 형태로 시중보다 최대 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해남 일원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대부분 남도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굵이 크고, 매운맛이 덜해 생식용이나 양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마늘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나실린보다 더 강력한 살균과 항균력이 있는 알리신을 포함하여 다이알릴 디설파이드, 메틸시스테인 등 여러 항암물질 함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철 마늘은 어떤 보약보다 좋은 건강한 먹거리로 알려져 있다"며 "고품질 해남마늘을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미소는 올해만 20여 차례의 자체 기획전을 통해 제철 농수특산물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 함평, 농식품부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38억 확보'

함평읍 백년마을·월야면 덕선마을 대상 마을 환경 개선 추진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함평읍 백년마을과 월야면 덕선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 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확충한다.

함평군은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모 선정을 위해 준비를 해왔으며,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4년 간 백년마을(21억원)과 덕선마을(17

억원)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 환경 개선, 휴먼케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 바르셀로나 찾아 '원도심 르네상스 구상 구체화'

"사람들 모여서 놀고, 자전거 타고, 걷기 좋은 도시 구현"

순천시가 2023순천국제제철원박람회 이후 일류 순천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국외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프랑스 아미앵에서 개최하는 '제2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과 함께 보행자와 광장 중심의 혁신 도시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의 정책 사례를 통해 시청 현안과의 정목방안

을 모색했다.

지난 7일 첫 방문지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스페인 바르셀로나다.

슈퍼블록은 도로 위 자동차 대신 거리 한가운데 조성된 놀이터와 광장에서 휴식하는 사람들로 차도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다.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후 바르셀로나는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사고율도 낮아졌으며, 도로는

놀이터와 공원이 돼 시민들은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을 되찾았다.

노관규 시장은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살피며 "이제 자동차를 편하게 해주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자전거 타고, 걷기 좋게 만드는 획기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거리가 삶으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어내고자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조순희 기자

## 강진군보건소 '마음아 괜찮아' 운영

강진군은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한,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아 괜찮아' 프로그램을 지난 9일 운영했다.

'마음아 괜찮아'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OX퀴즈 ▲걱정인형 만들기 ▲아동용 집문지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24시간 아동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이나 365일, 24시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다들어줄게' 등을 적극 활용해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다 들어줄게 개의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강아지 5마리가 구출하는 영상으로 구성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해 정신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사례 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 신안 청정 갯벌어장에 맞춤형 고소득형 패류 살포

바지락·가무락 7.4톤 살포... 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 기대

신안군은 최근 세계자연유산인 청정 갯벌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 선도지선 등 3개 지선에 고소득형 패류 7.4톤을 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살포한 패류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연 성장한 3cm 이상의 바지락(6.7톤)과 가무락(0.7톤) 2종으로 병성감정 기관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증된 종패이다.

특히, 패류는 서식지가 각각 다른 만큼, 패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어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연산 종패 서식 유무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 살포하였다.

신안=박정래 기자

신안군은 "이번 패류 살포를 통하여 갯벌어장 내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업인(지역주민) 소득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는 10월 중에는 자은 둔장지선 외 8개 지선에 백합(12톤)을 살포하는 등 지속적인 패류 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갯벌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소득형 패류로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127여 톤을 살포하고 있다.

75%까지 감소시키며, 짝가방에 쉽게 부착돼 등하갯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옐로카드 전달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희 기자

## 광양,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어린이 옐로카드' 전달

지역 내 29개소 초등 1학년 입학생 대상 1500개 보급

광양시는 광양시교육청과 잇따라 발생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1,279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 1,500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옐로카드'는 낮에는 햇빛

에, 밤에는 자동차 라이트 등에 반사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쉽게 눈에 띄게 함으로써 보행 중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주는 가방연결형 교통안전용품이다.

옐로카드는 보행자 발견 거리를 9배 증가시켜(17m→150m)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90%, 부상자 수

## 담양 '약국 통해 주민 자살 예방 나선다'

생명사랑약국 약봉투 제작 배포...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양군은 최근 생명사랑약국 사업의 일환으로 약봉투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명사랑약국'은 약국 방문 고객 중 우울증이나 불안, 자살사고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사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진행해 정신건강 위험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담양군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16곳의 생명사랑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배포하는 약봉투는



주민들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생명사랑약국 운영 및 약봉투 제작·배포는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방문 빈도수가 높은 약국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순희 기자